

쌀 농민 내년 받을 변동직불금 1ha당 고작 2,568원

FTA 피해 농민 두번 울린다

올해는 1ha당 46만원...정부 "확대 방침"에 정면 배치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1ha당 45만여원씩 지급됐던 변동직불금이 내년에는 거의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타결로 위기에 몰린 전남 농민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FTA 타결 직후 정부가 밝힌 직불금 확대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산정기준인 목표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최근 식량정책국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에 돌입했다.

농림부 잠정조정안은 현재 17만83원(80kg 한가마 기준)인 쌀 직불금 목표가격은 내

년부터 16만1천265원으로 5.2%인 8천818원이 낮아진다.

쌀의 내년 목표가격은 실제 쌀값 변동률(2001~2003년 산지 평균가격을 2004~2006년 평균가격으로 나눈 금액) 94.8%를 현재 직불금 목표가격에 곱해서 산출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난 3월 1ha당 45만9천757원을 변동직불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2천568.1원만 받게 된다.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같다고 봤을 때 사실상 변동직불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년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는데다 방식도 법령에 나와있

■ 1ha당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 변동 전망

	2007년	2008년
고정직불금	70만원	70만원
변동직불금	45만9,757원	2,568.1원
직불금 합계	115만9,757원	70만2,568원

※고정직불금과 쌀산지가격이 같은 상황에서 목표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변동직불금=(목표가격-산지가격)×0.85-고정직불금

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의 생산유지를 위해 농민들에게 1ha당 70만원씩을 고정직불금으로 주고 있다. 여기에다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간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해왔다.

결국 1ha 인권의 농사를 짓는 전국 38만4천여 농가는 내년에 전체 직불금 수입이 115만9천757원에서 45만7천189원 감소한 70만2천568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지난해 협의된 쌀협상 및 DDA협상 이후를 대비해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하나다.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서 농업경영(휴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농업인에게 쌀 가격하락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고정직불금이라고 하고, 고정직불금이 쌀값하락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을 변동직불금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난 2006년에 생산된 쌀에 대해 지난 3월말까지 농민들에게 지급한 변동직불금 규모는 모두 4천371억원이다. 여기에 7천184억원인 고정직불금을 합하면 전체 쌀 소득보전직불금 규모는 1조1천555억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이 16만1천265원으로 줄면 변동직불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이젠 재무설계 시대

'광주 FP포럼'·금융기관 PB센터 부동산·세무·상속 등 토털 컨설팅

2 서비스 어디서 받아

광주·전남지역은 재무설계 서비스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재무설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낮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제대로 된 재무설계를 제공할 만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유료 재무설계 컨설팅 회사인 포도에셋이 2002년 7월 광주에 처음 진출했다가 3년만에 철수한 후 지난해 7월 광주 상무지구로 새로 문을 연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금융·보험상품 선택에서부터 부동산·세무·상속 등 토털 재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대다수의 은행들은 PB(프라이빗 뱅킹)센터에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총자산 및 금융자산의 한도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비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광주은행은 간단한 재무상담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고객은 물론 예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상속이나 세무, 부동산 등 전문적인 재무설계는 본점과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PB센터에서 전문인력들이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및 금융상품 안내 등 간단한 재무상담을 해준다. 광주지역의 경우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지역본부에 'FA', 'FP' 등 재무설계 센터를 따로 두고 부동산·세무·보험 등 토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생명 광주지원은 FA센터와 마린, 4명의 전문 상담사를 두고 있다.

한국FP협회 광주·전남지부적인 '광주FP포럼'은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인 CFP와 AFPK 소지자 20여명이 중심이 돼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현지 종사자들로 자신들의 고객을 위주로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유료 재무설계 컨설팅 회사로는 포도에셋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금융교육과 개인들의 재무상담을 주로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랑의 집 지어드립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호텔에서 장성군과 '사랑의 집' 사업협약식을 갖고 장성 관내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30가구) 건립에 나섰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김규룡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최영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최중수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김삼복 장성군의회 의장.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에서 재무설계 받을 수 있는 곳

구분	광주은행	대한생명	광주FP포럼	포도에셋 광주지점
이용대상	고객 및 예고고객	고객 및 예고고객	의뢰인	의뢰인
제공서비스	금융 투자 등 전문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보험 금융 등 재무설계	보험 등 재무설계 라이프케어	금융교육 재무상담
이용지점	전 영업점 본점·상무PB센터(특화서비스)	광주 대인동 광주지점	-	-
수수료	없음	없음	-	미혼 10만원 기혼 15만원
상담인력	5명	4명	20명	12명
연락처	239-5301 (본점) 384-8970 (상무)	220-1161	523-3162	373-7100

만 40세·66세 건강검진 실시

이달부터 맞춤형 진단

중년기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66세 연령층에 대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단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검진에서 탈피, 연령대별로 검진항목 등을 달리하고 검진 이후에는 의사 상담을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한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 40세의 경우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기를 감안해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과 함께 중성지방 및 B형 간염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진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 66세 수검자에 대해서는 노인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며 66세 여성 수검자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추가된다.

1차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검진 결과와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을 놓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흡연과 음주, 영양, 운동 등 각자의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 조언 등을 하는 2차 건강진단이 뒤따른다. 건강위험평가는 생활습관과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각 개인의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등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한 것이다. /연필뉴스

은행 마감 3시 30분 가능할까

금융노조 핵심과제로 추진 고객 반발 거세 실현 미지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공동 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 '창구영업 시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당사자인 사용자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고객들의 항의도 예상되는 거세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기겠다는 금융노조 방침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노조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객 불만 뿐만 아

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구영업 시간 단축으로 기업체 자금 운용이 뒤흔개질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통상 기업체의 경리, 회계, 자금운용 등 상담수 업무가 은행 마감시간에 맞춰져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마감까지 수출환어음을 제출해야 하는 수출업체들로서는 더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반발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금융노조는 "2002년 은행의 주5일제 정착이후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줄었다"며 "자동화기기(ATM/CD) 확대, 수수료 인하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가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와 은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영업시간 단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자동화기기 수수료 일체 면제 또는 24시간 운용 등 고객불편을 보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기업도 女風 거세다

여직원수 4년새 48%나 늘어

참여정부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10대 그룹 내에서도 이 기간 여직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10대 그룹 계열 12월 결산 상장법인 69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그룹내 여직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8만129명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말 5만4천274명에 비해 47.6%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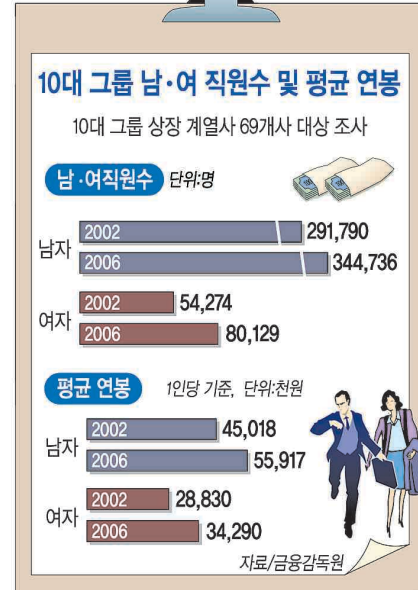
이는 같은 기간 남자 직원 수가 29만1천790명에서 34만4천746명으로 18.2%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비하면 2배가 넘는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이들 그룹 전체 직원 중 여직원 비중도 15.7%에서 18.8%로 확대됐다. 전체 직원 수는 34만6천65명에서 42만15천863명으로 23.1% 증가했다. >삼성 여직원 4년새 100% 증가=10대

그룹 중 여성인력을 가장 공격적으로 늘린 곳은 삼성그룹으로 2002년 말 2만1천544명 이던 여직원 수가 지난해 말 4만3천300명으로 100% 가량 급증했다. 여직원 비중도 24.1%에서 3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룹별로는 LG(64.2%), SK(19.9%) 등이 여직원 수를 크게 늘린 반면 GS(-69.3%)와 한화(-19.6%) 등은 여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평균임금 격차도 확대=하지만 여직원이 수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여 직원간의 평균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여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3천429만원으로 2002년 2천883만원에 비해 18.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5년 남작직원의 평균연봉은 4천502만원에서 5천592만원으로 24.2% 올랐다. >여직원 연봉 최고는 오리콤=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 중 여직원 평균연봉이 높은 곳은 오리콤으로 지난해 5천502만원을 기록했으며, 데이콤(5천555만원), 제일기획(4천900만원), GS(4천900만원), SK텔레콤(4천640만원), 대한항공(4천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한미FTA 이후 고용시장 어떻게 변할까

기업체 "긍정적" 구직자 "글썸..."

한국 산업계에 전반적인 직각변동을 가져올 한미FTA 이후 고용시장은 어떻게 될까?

10일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5~9일 자사 회원인 국내 거주기업 497개사를 상대로 한미FTA가 향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기업은 30.6%였고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11.1%였다. 한미FTA가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쟁을 통한 국내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일자리 증가'(27.2%), '해외 취업기회 확대'(23.4%),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로 고용창출 기대'(19.3%), '전문직 인력시장 확대 및 새 직업군 창출효과'(14.8%)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폐업·업종변경 기업 증가로 일자리 감소'(28.9%), '양극화 현상 심화'(25.0%) 등 대량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16.4%)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7.2%)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에 대해 구직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커리어가 6~8일 자사 회원인 구직자 3천978명에게 '한미FTA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를 묻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5.9%, "일자리가 줄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3.3,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0.8%로 각각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외국기업·자본 유입 증가'(64.5%), '국제협상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2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들은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 도태'(43.0%), '기업 구조조정 강화'(42.0%), '외국 인력 유입 증가'(11.8%)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연필뉴스

현대중 '한국 최고의 직장'

美 인사관리 전문컨설팅사 선정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인사관리 전문컨설팅업체인 휴잇 어소시엣츠가 제정한 '2007년 한국 최고의 직장(Best Employers in Korea 2007)'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1년과 2003년에도 휴잇 사로부터 한국 최고의 직장에 뽑히어 이번이 3번째 선정됐다.

휴잇사는 미국 포천지 등과 공동으로 1981년부터 나라별 '최고의 직장상'을 뽑고 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방법과 업무환경, 급여 및 보상, 복리 후생, 교육과 훈련, 직장내 인간관계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기업에 주어진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후생복지제도가 뛰어나고 직원들이 회사와 업무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